

시골 마을에 나타난 불청객

보름이 이야기(2)

시골 마을에 나타난 불청객



하재영
팅커벨 입양센터 공보팀장, 작가

만복이의 보호자인 수연 씨는 팅커벨 입양센터 첫 봉사 때 보름이를 만났다. 그날은 수연 씨가 팅커벨 프로젝트 커뮤니티에 가입한 다음날이었고, 봉사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토요일이었다. 만복이에 대해 도움 될 만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팅커벨 프로젝트에 가입했지만, 수연 씨 또한 다른 유기견들을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함께 할 생각이었다.

가입한 지 하루 만에 봉사에 참여한 수연 씨는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렀다. 수연 씨는 입양센터 간사에게 몇 가지 수칙을 들은 뒤 다른 봉사자들이 하는 일을 눈치껏 거들었다. 변을 치우고, 바닥 청소를 하고, 산책까지 다녀오자 몇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열대여섯 마리의 강아지들 중에서 수연 씨는 1번 견사에 있는 중형 믹스견에게 유난히 마음이 쓰였다. 그 믹스견은 견사를 함께 쓰는 두 마리의 강아지와는 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다른 견사의 강아지들은 공용공간에서 그 믹스견과 마주치면 죽어라고 짖고 쫓아다니며 못살게 굴었다.

말티즈, 치와와처럼 몸집이 한참 작은 강아지들이 대들고 덤벼도 그 믹스견은 대거리조차 하지 못했다. 대거리는커녕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주춤주춤 물러서거나, 꼬리를 말고 가만히 비켜날 뿐이었다.

‘저 아이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신입회원이다 보니 수연 씨는 팅커벨에서 구조한 유기견들의 사연을 잘 몰랐다.



수연 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팅커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날 만난 믹스견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았다. 강아지의 이름은 보름이. 보름이의 입양광고에는 특이사항으로 모낭충 병력이 기재되어 있었다. 모낭충에 걸린 채 시골마을을 배회하며 온갖 구박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읽으며 수연 씨는 콧잔등이 시큰해졌다.

수연 씨는 입양광고에 나와 있는 보름이의 예전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낮에 만난 강아지와 같은 강아지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보름이의 모습은 처참했다. 센터에서 본 보름이는 하이에나를 닮은 늙은 외모에 명민하게 빛나는 갈색 눈을 가진, 멋진 외모의 강아지였다.

하지만 보름이는 너무나도 주눅이 들어 있었다. 구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견들은 버려졌다는 충격 때문에 종종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보름이는 구조된 지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난 상태였다.

작은 강아지들이 덤빌 때 짖는 소리 한 번 못 내고 슬금슬금 피하는 모습도 안타까웠지만, 지나치게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도 보기가 딱했다. 그날 누군가 큰소리를 냈을 때 다른 강아지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데, 보름이만 깜짝 놀라서 한참을 안절부절 못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수연 씨는 ‘입양센터 일기’ 게시판에서 보름이에 관한 글을 검색했다. 글을 통해 만난 보름이는 가없고 안쓰럽기만 한 아이가 아니었다.

보름이는 말귀를 잘 알아듣는 똑똑한 강아지였고, 여전히

사람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흠 잡을 데 없는 보름이는 구조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단 한 건의 입양 문의도 없었다고 했다.

믹스견이어서 그럴까? 아니면 소형견이 아니라서? 또는 모냥충 때문예? 그 중 한 가지가 이유일 수도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이유일 수도 있었다. 그날 이후 수연 씨는 틈만 나면 보름이의 입양공고를 읽었다. 어느 날은 구조 전의 보름이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했다. 입양공고의 문장을 외울 정도로 읽고 또 읽었지만, 수연 씨는 자신이 보름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수연 씨가 다시 입양센터 봉사를 간 것은, 보리가 강아지별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이미 몇 주 전에 딸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잡아둔 스케줄이었고, 수연 씨 또한 유기견 봉사가 처음인 아이들에게 길잡이를 해주겠노라고 약속한 일이었다. 센터에 도착해 강아지들을 보

는 순간, 수연 씨는 이곳에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비록 자신의 반려견은 먼 곳으로 떠났지만 이곳에는 사랑이 필요한 또 다른 존재들이 있었다. 수연 씨는 힘을 내서 아이들을 이끌고 일을 시작했다.

1번 견사에서 보름이와 놀아주던 수연 씨는 문득 보름이의 피부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리털이 빠지면서 별경게 속살이 드러나 있었고, 그 부위만 유독 짓물러 있었다. 보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천진한 눈빛으로 수연 씨를 바라보았지만 수연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또 모냥충이구나.’

센터 직원과 봉사자들은 보름이의 모냥충이 재발했다면 두 세 달은 꼼짝없이 병원 케이지에 있게 될 거라고 말했다. 치료 후에는 텅커벨 프로젝트의 위탁 보호소 — 보름이가 입양 센터에 입소하기 전까지 지냈던 곳 — 으로 보내질 거라고 말했다. 위탁 보호소는 입양센터보다 실외 생활이 자유로웠다. 실내외를 오가며 햇볕을 쬐고 바람을 맞으면 또 다시 모냥충이 재발할 확률은 줄어들지 몰랐다. 하지만 수연 씨는 보름이가 입양센터에 계속 있기를 바랐다. 보름이를 자주 보고 싶었고, 보름이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싶었다. 무엇보다 입양센터는 유기견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들



이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위탁보호소에 머무르는 것보다 입양 확률이 더 높았다. ‘하지만 그게 정말 보름이를 위한 것일까? 위탁처에 있을 때는 모냥충이 발병한 적 없더니, 거기가 보름이에게 더 잘 맞는 환경인지도 모르잖아.’

입양센터에서 보름이의 모냥충이 재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보름이는 불과 몇 달 전에도 모냥충 때문에 두 달 넘게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었다. 텅커벨의 어느 회원은 수연 씨에게 그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보름이를 만나러 병원에 갔을 때, 보름이는 사람처럼 흐느껴 울면서 반가워했다고 한다.

항상 점잖고 의젓한 보름이지만 그때만큼은 케이지가 부서져라 발버둥을 치더라 했다. 그는 보름이가 입원해 있는 동안 몇 번인가 보름이를 데리고 나와 바람을 쐬게 해주었다. 바깥에 나가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던 보름이는,

입원실로 돌아갈 때면 비명을 지르면서 안간힘으로 버텼다고 했다. 얼마나 돌아가기 싫었을까. 얼마나

감작하고 외로웠을까. 친구들에게 치일 때도 있지만 보름이에게 입양센터는 나름대로 행복한 곳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모냥충이 확실하다면 보름이는 입양센터 친구들도, 익숙한 사람들도 없는 병원 입원실에서 지난번처럼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었다.

‘내가 보름이에게 임시 가족이 되어 줄 수 있을까? 보름이가 통원치료를 하며 우리 집에서 지내도록 해줄 수 있을까?’

머리로 생각하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미 가족이 된 만복이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보리가 떠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남편과 가족들에게 보름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단모 믹스견인 보름이는 털 빠짐이 심했고, 불안감 때문인지 마킹도 유난히 많은 편이었다.

하지만 머리가 아닌 마음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수연 씨의 마음은 보름이를 사랑했고, 돕고 싶어 했고, 어둡고 외로운 방에 혼자 두고 싶지 않아 했다. 주말이 지난 후, 수연 씨는 입양센터로부터 보름이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보름이가 모냥충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였다. (계속) 